

日本, 中國 군사大國化에 주변국 軍備 확충



일본 해상지위대가 보유한 최대 호위함인 DD 173 이지스(AEGIS) 탑재 호위함(7200톤)

일본 은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8천여 억원에 달하는 7천2백톤급 이지스(AEGIS)艦을 구입키로 한데 이어, 1993년에는 공중조기경보기(E-3 AWACS)를 도입할 것이라고 10월 15일 미야시타 소헤이(宮下創平) 일본 방위청장관이 발표했다.

이미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인 FSX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25만명의 자위대 병력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되어 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 戰後 최초로 자위대를 해외에 본격 파견함에 따라 주변국들의 우려가 한층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냉전종결 이후 세계각국이 군비축

소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지역만은 반대로 군비증강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1백50기를 구입하는데 이어 對잠수함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만은 또 프랑스와도 미라주전투기 구입을 진행중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예전투기 수호이 27을 24기 구입한데 이어 추가로 36기를 구입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조)

필리핀은 러시아로부터 코르베트함과 초계정, 소해정등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영국으로부터 호크전투기를 각각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 또한 영국으로부터 프리깃함 2척 구입을 결정했으며, 러시아로부터 미그 29 전투기 30대와 프랑스로부터 엑조세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동남아에서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은 F16 전투기 18대와 C130 수송기 4대의 구매계획을 세웠으나, 지난달 공군사령관의 교체이후 도입계획이 보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舊동독의 순양함 및 상륙함을 구입한다.

최근 몇개월간의 이같은 보도 이외도 아시아의 군비증강은 각국의 군사비 증액추이를 보더라도 눈에 띄게 드러난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1992년 방위비 및 무기 구입

구분	방위비 (億불)	前年對比 신장율(%)	최근 구입 또는 구입예정 신무기
중 국	68	12.1	우크라함모, 러시아 수호이 27기 24대, 미그 31기 다량, T72M전차 4백40대
북 한	23	2.6	핵무기 개발 의혹
대 만	109	3.4	佛 프리깃함 16척, 美 F16 1백50대, 佛 미라주 전투기 2~3개 대대
싱 가 포 르	25	11.6	美 F16 11대, 방위비를 전체예산 6%까지 증액
말레이시아	11	12.8	英 프리깃함 2척, 佛 엑조세미사일, 미그29 전투기 30대
태 국	28	13.5	美 F16 제트전투기 18대, C130 수송기 4대
인도네시아	6	3.2	英 호크전투기 44대
필 리 핀	8	22.0	체코 및 이스라엘 전투기, 이탈리아 훈련기
인 도	68	7.0	핵탑재가능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 성공

일본의 군사비는 증가율로서는 3.8%에 불과했지만, 총액으로는 4조5천5백억엔으로 한국·중국등의 3, 4배에 달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92년판 <군사연감>에 따르면 91년의 재래식무기 거래 총액은 90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총액에서 아시아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首位를 차지해, 지금까지 최대무기시장이었던 中東을 앞지르게 되었다.

東西 냉전의 종결이후 초강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 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지역 패권을 노리는 세력의 등장에 대해 우려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은 다른 나라와 그 성격은 달리고 있으나 꾸준한 군비증강과 잠재력, 그리고 자위대의 해외파견등이 주변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

북한, 세계 제 3위 生·化學戰 전력 보유

최근 국정감사보고를 통해 정보당국은 북한이 1천톤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화학무기를 즉각 남한에 살포할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에는 △17개의 총포공장 △35개의 탄약공장 △5개의 전차·장갑차공장 △9개의 항공기공장 △3개의 유도무기 공장 △5개의 통신장비공장 △8개의 생화학공장등 무기공장과 수십개의 군수물자공장등 모두 1백30여개의 군수공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국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직후인 54년부터 70년대중반까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부문에 매년 공업투자액의 80%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군수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생화학무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따라 화학무기는 연간 5천톤, 생물무기(전염병균)는 연간 1톤의 생산능력을 갖는등 미국과 旧소련에 이어 세계 3위의 생화학전 수행능력을 보유케 됐다.

특히 사정 9백km이상의 신형 스커드미사일 「노동1호」의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전망된다. *

북한이 80년대 후반 舊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최신에 MiG-29 전투기

